

지역 소식통

정읍시보건소, 찾아가는 마음안심서비스 운영

정읍시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난 8월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등 잇단 정신관련 사건·사고 발생으로 정신(마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찾아가는 마음안심서비스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마음안심서비스'는 지리·교통·시간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읍면동 지역 대상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정신건강 캠페인과 검진 및 상담 등의 마음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조기개입해 정신질환 발병을 예방하고, 질환자의 경우 조기 치료의 효과를 높여 정신질환의 중증·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다.

손희경 소장은 "제 때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 제도를 구축하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한빛원전 고창분소 방재담당요원 교육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센터 고창분소(분소장 이나영)가 지역 방사능방재대책 본부의 방재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직별 업무설명과 방재요원으로 서 주민대피 및 구조활동에 대한 교육도 열렸다.

앞서 지난 1일 한빛원전지역발전소 3호기의 가상 사고를 전제로 한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에서 주민 611명을 대상으로 한 방재교육도 열렸다.

구호소 내 방사능 체험홍보부스 운영을 통한 학생들의 방사선측정 및 지역민 설문조사도 이뤄졌다. 설문조사로는 고창분소의 역할이해 및 업무반영을 위한 조사 내용으로 지역민의 수요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나영 고창분소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전 교육을 통해 비상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한 지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 농업 · 농촌 번영 지원

고창농업인의 날 행사... 추수감사제 · 이상환 회장 등 14개 읍면 유공농업인 군수 표창

농업인단체 고창군협의회(회장 최종업)가 9일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제25회 고창군농업인의 날' 행사를 지역 농업인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이날 기념식은 농업농촌의 번영을 기원하고 흉년농사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제를 시작으로 고창군농업발전회 기여한 유공농업인 이상환(고창군 4-H연합회)회장 외 14개 읍면 농업인이 군수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유공 농업인 3명에게 고창군의장상과 유공 공무원 및 고창농협 등 유관기관에게 농단협에서 공로패를 전달했다.

특히 11월11일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퍼포먼스로 11m원뿔으로 기



념식 케팅식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또 가루쌀을 이용한 빵 시식행사, 쌀 적정생산과 경쟁력제고를 위해 벼 품종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신동진, 참동진, 전주662호, 천혜진선향 품종 전시와 밥맛 평가도 이뤄졌다.

또한 농업의 미래주역인 청년농업인의 성공모델 평가회, 토종농산물 홍보, 고창 식재료를 활용한 읍면별 요리진시, 떡메치기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로 농업인의 호응을 얻었다.

/고창=김영식기자

2025~2026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정읍시, 26개 사업 · 3480억원 규모...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 소각시설 설치 등

정읍시는 지난 8일 2025~2026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갖고 총 26개 사업을 발굴했다.

이날 이학수 시장이 주재한 보고회에는 사업담당 실과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수립과 대응방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시는 지난 8월부터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계획을 수립해 전 부서에서는 정부 정책과 부합된 사업, 인구·기후 등 환경변화 선제대응 사업, 미래 신성장동력 고부가가치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에 총력을 다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3480억 원 규모의 26개 사업을 발굴했다.

주요 사업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소각시설 설치(2000억원) △사



연재해위험개선지구(박동·내철·상두 3개소) 정비사업(470억원) △가능성 팻푸드산업 네트워크 구축사업(150억원) △내장호 에코리움 전망대 조성사업(100억원) △말고개 숲향기 탐방로 출렁다리 설치사업(100억원)

△서남권 광역 반려동물 장묘시설 신축(75억원) △정읍시 시민문화관 건립(64.46억원) △감곡면 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60.81억원) 등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서울시 중구, 우호결연 협약 상생 발전 모색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서울특별시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양도시간 우호협력 증진 및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우호결연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 김길성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및 간부공무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도시 홍보 동영상 시청, 경과보고, 협약서 서명, 단체장 인사말씀, 기념품



교환 및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양 기관은 우

호협력 증진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 경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교류,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존중하며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단체 교류 활동 적극 권장 및 육성, 행정사태에 필요한 정보 공유 및 상부상조 함으로써 경쟁력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 등 다양한 분야에 함께 힘을 여정이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전북지역아동센터 성과포럼서 3개 부문 수상

정읍시 소재 지역아동센터 3개소가 2023 전북 지역아동센터 성과 포럼에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전북도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은 지난 7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한 해 성과를 공유하는 '2023 전북도 지역아동센터 성과포럼'을 개최했다.

전북지원단은 성과포럼 개최에 앞서 우수사례 프로그램 접수를 받아 총 22개의 사례를 받았다. 이후 심사를 통해 5개의 우수사례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그 중 정읍시 소속의 열린지역아동센터의 '방송댄스 프로그램-댄싱걸즈'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내성적이었던 센터 아동들에게 방송댄

스를 경험시켜 적극적인 모습으로 더 큰 성장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중 발달이 또래보다 느리지만 적절한 교육과 지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인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의 아동창작물 부문에서는 신태인꿈나무지역아동센터의 성연규, 조민재 아동들이 금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푸른숲속지역아동센터 이경진 센터장은 도지사상을 받았다. 김막례 과장은 수상소식을 듣고 "아동들의 권리 증진과 복지를 위해 합쳐주시는 지역아동센터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업전문가 육성' 정읍단풍미인대학 수료식 개최

정읍시는 지난 8일 제2청사 대강당에서 단풍미인대학 수료생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정읍단풍미인대학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우수수료자 시상식에서는 허석영(덕천면), 변찬혁(연지동) 씨가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고 최경배(구룡동), 임원자(농소동), 조병용(입암면) 씨가 시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 단풍미인대학은 단감반, 사과반, 청년벤처농업인반 3개 과정으로 편성·운영됐다.

특히 지역농업의 특화발전이 필요한 장기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농장경영과 과학영농 실천능력을 갖춘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과정별 15~16회 이론수업과 농가현장 실습교육으로 진행됐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 9개월간 교육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모든 수료생분들에게 축하를 드린다"며 "이 과정을 통해 배운 전문기술 교육이 농가소득 향상을 물론 앞으로 정읍농업을 이끌어갈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단풍미인대학은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해마다 실시하는 장기 교육으로 2008년부터 올해까지 16기수 106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바리스타 자격증 전원 합격

부안군 가족센터(센터장 김화순)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의 안정된 정착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반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에 참여한 8명의 결혼이민자들은 9월 13일부터 11월 8일까지 에스프레소 라떼아트, 핸드드립 등 총 12회기의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8명 전원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는 11월 29일에는 부안군가족센터에서 8명의 새내기 바리스타가 지역주민들에게 핸드드립 커피를 제공하는 재능나눔 커피시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보미가 출신의 프로그램 참여자 A씨는 "평소 바리스타에 관심이 많았는데 좋은 기회에 전문적인 수업도 듣고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었다"라며 "시험을 준비하면서 생소한 커피 용어가 어렵기도 했지만, 좋은 성적으로 시험에 합격하여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